

## 동전 한 푼의 교훈

“사장님, 감사합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돈은 저에게도 있습니다. 도로 가져가십시오.”

“음, 그래? 겨우 동전 한 푼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 받아도 좋다.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 동전 한 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이다.”

뉴욕의 큰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던 소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손님과 주고받은 이야기이다.

그 손님은 바로 세계적인 갑부인 포드였으며 포드 사장이 자기 백화점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기에 최대의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던 소년은 글부터 겨우 동전 한 푼을 팁으로 받게 되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도로 포드 사장에게 주었을 때, 포드 사장이 소년에게 준 뼈저린 훈계였다.

그 후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그 소년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다.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.

“내가 성공한 것은 소년시절 백화점에서 일할 때 포드 사장이 내게 들려 준 한 마디 때문이었습니다. 그 후 나는 그의 말을 거울삼아 동전 한 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과 절약을 해 왔습니다.”

소년은 포드 사장에게서 들은 한 마디의 말을 평생의 금언으로 삼은 재치와 놀라운 끈기 때문에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.